

교육초점

청소년 성교육 재정비 시급

성개방 가속, 뒤떨어진 성교육

왜곡된 지식으로 잇단 탈선... '순결·위생교육' 새세대와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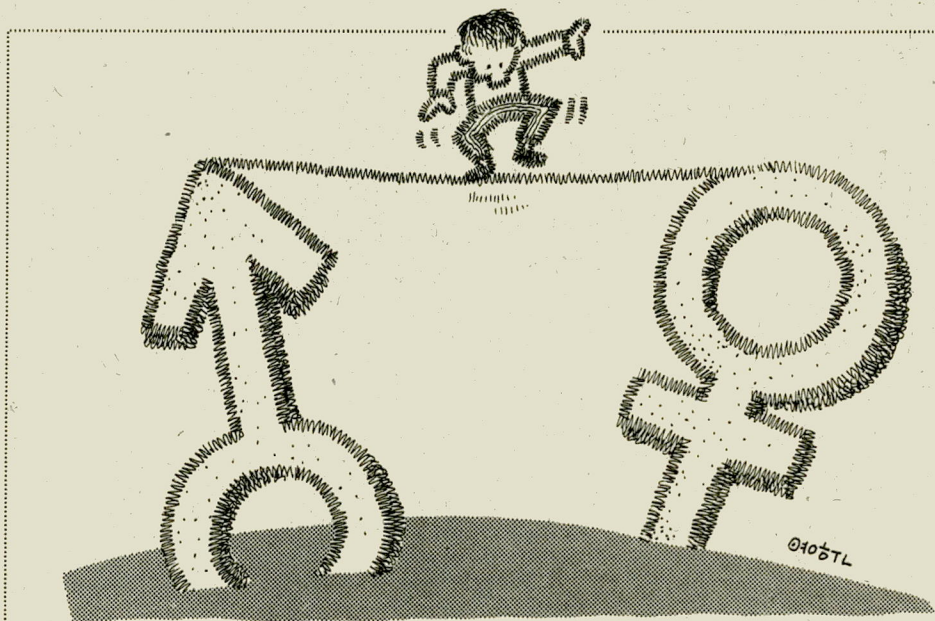
한승동 기자

최근 무분별한 성의 상품화와 함께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소년 성교육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관련 각종기관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의 발육증진으로 이들의 사춘기가 적어도 2~3년 앞당겨지고 있고 전통가치체계의 붕괴와 유흥정보의 범람으로 청소년들의 성문제 고민 및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지난해 한국 교육개발원의 초·중·고교생 성문제 실태조사 결과와 최근의 청소년 성범죄율 증가추세 등에 자극받아 "어떤 식으로든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이끌어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신체 생리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조화시키고 책임있는 인간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교육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교육은 가정·학교·사회의 각 영역에서 나름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성교육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개발원은 오히려 가정과 사회에서의 음성적 성지식 획득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연구자는 "급속한 개방 추세에 따라 향락과 과소비 행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은 거리에 범람하는 대중오락잡지·만화가게·비디오테이프·영화·카페·디스코클럽·사창가 등에서 보거나 얻은 엉터리 성지식과 비정상적 성행위를 성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배우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성문제나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점점 더 과감해지는 영상매체 속의 침실장면,



성폭행장면, 기타 성애장면들에 무방비로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문제에 관한 한 순진하고 무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요즘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적이고 퇴폐적인 성지식의 급속한 확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 학교 성교육은 어떤가. 현재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이를 전담하는 교과도 교사도 없이 비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나마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서 일부 예외적인 지역 및 학교들을 빼면 거의 무시되고 있다. 학교 성교육은 체육·가정·생물·국민윤리·사회 등의 교과에서 조금씩 나뉘어 다루고 있을 뿐이며 내용 또한 단편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생활지도를 위한 특별활동 시간이나 결장시간을 이용해 성교육을 가끔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전담할 교사가 없어 양호 교사를 따로 연수시켜 지도하는 형편이다. 설사 성교육 관련 단위

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당과목 교사들은 전문지식이나 관심의 부족, 또는 이 문제를 터부시하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적당히 댄질하는 식으로 피해가고 만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각 학년 초 체육시간에 1시간 정도 성교육 관련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남녀공학인 서울 7중학교의 경우 모처럼 성교육시간으로 할애된 1시간을 남학생에게는 공차기를 시키고 여학생들에 대해서는 양호교사가 따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지금 되고 있는 교육은 그나마 기능적인 접근방법으로 일관해 남녀의 생물학적 구조나 순결·위생을 강조하는 차원의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나 시·도 교육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나온 성교육자료는 상당한 편이고 그중에는 각급 학교별로 내용체계도 비교적 잘돼 있는 것도 많다. 그러나 이들은 80년대 초기에 구성된 내용체계에 입각한

자료들로 사회 속의 성문제나 성도덕(윤리)을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 자료는 주로 교사용으로 지도도 지침을 제공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이지도 못하다는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공식발간해 4만여부를 각급학교에 긴급배부한 성교육자료 책(121~133쪽)도 교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독립된 관련 책자로는 보조교과서는 물론 참고서조차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한 통로는 막히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계 안팎에 보수적 시각이 많아 교육부 관계자들은 "관계기관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학부모 의식조사를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성교육 강화가 자칫 학부모 및 사회의 지탄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이다.